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 분석: 2017~2024학년도를 중심으로

이재호¹, 박대호²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도덕과에 한정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역량을 평가하는 초등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과 문항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8년간(2017~2024학년도) 출제된 초등 도덕과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과 문항을 양적,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문항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내용 면에서 볼 때 도덕과 수업의 실질적 지도 능력의 평가를 염두에 두는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 및 설계 면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한 배제한 상태에서의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내용과 설계 면을 아울러서 제안하면, 예비교사로서의 수험생의 판단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 임용시험은 우수한 교사의 선발과 우수한 교사의 양성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해도 좋은 만큼, 그것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도덕과교육, 초등 임용시험, 평가, 지도역량, 타당도

1.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jhlee@gnue.ac.kr (제1저자)
2.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dhpark@cje.ac.kr (교신저자)

I. 서론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이하 초등 임용시험)은, 공립학교 교사 채용을 위하여 1991년에 도입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출제 방식에 일부 변경을 가하였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근본 취지와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제도이다. 그런데 초등 임용시험은 한편으로 교사 양성 특수목적대학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질 높은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명실상부의 제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의 최초 시행 시기부터 다양한 쟁점과 이견을 불러일으키면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초등 임용시험에 관한 쟁점과 이견은 이 제도 시행의 기반이 되는 목적에 의하여 시작 시기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우수한 초등교사의 선발’,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사의 선발’과 같이 초등교사의 선발이라는 말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서 임용시험의 시행 목적과 그에 따른 취지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인간 마음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수한 초등교사의 선발을 겨냥하는 임용시험은 주관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대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의 능력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모호한 대상을 평가하면서도 최대한의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은 전자에 주목하면 후자가 소홀해지고, 반대로 후자에 주목하면 전자가 소홀해지는 그러한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동안의 연구 사례를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등 임용시험을 다룬 거의 모든 연구가 ‘우수한 교사의 선발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임용시험의 성립 기반 자체를 주된 문제의식으로 삼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임용시험이 겪고 있는 이중의 어려움과 내적 관련을 맺고 있다.

초등 임용시험이 안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임용시험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지로 학계나 교사 임용선발을 담당하는 일각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서적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현재진행형의 제도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방안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다른 목소리는 초등 임용시험의 ‘타당성을 가능한 한 확보하라’는 현실적인 요청으로 읽을 수 있다. 연구자의 선행조사에 따르면, 초등 임용시험에 관한 교과별 문항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다수의 연구성과가 있으며(이완기, 2016; 이재호, 2016; 정혜승 외, 2017; 강훈식, 2020; 나재권, 이영석, 2021), 그러한 연구에 힘입어 초등 임용시험은 다소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초등 임용시험의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발전에 미력

하계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에 한정하여 초등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안목과 교과 지도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된 그간의 문항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등 임용시험은 그것의 출발점에서부터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적합성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정을 겪어왔다. 초등 임용시험이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1차 시험과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영어면접 및 영어 수업 실연을 포함한 2차 시험이라는 현재와 같은 두 절차로 안착한 것은 2013년부터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객관식 시험은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에 수업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연이 도입되고 그 시간도 점차 확대되는 등 초등 임용시험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 특히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 능력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신춘호, 2020, 126). 이러한 개선 방향은 본 연구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는 별개로 현재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1건(이재호, 20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2016년 이후로 현재까지의 출제 문항에 관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출제된 문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향후 도덕과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도덕과의 지도역량을 갖춘 초등교사의 선발을 겨냥하는 임용시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먼저 2017학년도~2024학년도에 한정하여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의 출제 경향과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임용시험 문항을 8개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그 이전의 10개년(2007학년도~2016학년도)이 이미 충실히 분석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과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선행 연구는 주로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이후의 임용시험 문항을 선행연구에 분석된 내용과 뒤섞는 것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임용 시험 문항의 특징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외시하게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 속에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는 총 18년 동안의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에 관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과 임용시험 문항의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겠다.

II.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의 출제 범위 및 경향

1.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의 출제 범위

임용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 볼 때, 초등 도덕과의 출제 내용과 범위는 출제 경향이나 문항 분석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과 범위 설정의 문제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이재호, 2016)에서 이미 상세하게 수행된 바 있으며, 201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비교할 때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출제 내용과 범위는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고시된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에도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에 해당하는 출제 내용과 범위가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출제 내용과 범위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¹⁾

도덕과교육의 출제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초등교사 양성대학의 예비교사가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교과내용학—예컨대 민주시민과 인성론, 동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서양철학, 윤리학의 이해, 통일론—은 윤리교육 심화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은 특정 심화 과정과는 상관없이 초등교육학을 전공하는 모든 예비교사가 공통으로 공부하는 전공필수과목(도덕과교육의 이론, 도덕과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출제의 내용과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기반하여 도덕과의 출제 내용 및 범위를 정리하면 이하에서 살펴볼 3개의 표와 같다. 첫째는 도덕과교육의 이론 영역의 출제 내용과 범위 설정이다.

〈표 1〉 도덕과의 출제 내용 및 범위 설정(1)

도덕과교육의 이론 영역		
동서양의 윤리사상(윤리학)		도덕심리학
동양윤리	서양윤리	
공자, 맹자, 순자의 인성론과 도덕교육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뒤르켐, 듀이, 프랑케나, 피터스의 윤리사상 및 도덕교육론	프로이트, 행동주의, 사회학습이론, 피아제, 콜버그, 길리건, 나딩스의 도덕성 및 도덕교육론

1) 이하 이 절의 내용은 선행연구(이재호, 2016)의 2장을 요약 및 정리, 그리고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둘째는 도덕과 교육과정 및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론 전반에 관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에 관한 영역이다. 선행연구는 당시의 국가 교육과정 고시문과 초등학교 『도덕』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출제 내용 및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표 2〉 도덕과의 출제 내용 및 범위 설정(2)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도덕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방향, 중점 • 성격, 목표, 내용 영역 및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도의 원리 • 유형에 따른 학습지도 방법 • 일반 교수·학습 과정·절차 • 특정 수업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기본 방향 • 평가의 원리 • 평가의 과정·절차 • 유형에 따른 평가 방법

선행연구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영역의 하위 요소가 많고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표 3〉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한 데는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살펴볼 때 임용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이 영역은 이때까지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영역이다.

〈표 3〉 도덕과의 출제 내용 및 범위 설정(3)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영역			
학습지도의 원리 (13개)	유형에 따른 학습지도 방법(3개)	일반 교수·학습 과정·절차(6개)	특정 수업모형 (10개)
정합성, 인지화, 심경화, 행동화, 통합성, 지적·도덕적 발달단계 고려, 자율적 탐구학습, 주체적 자각화와 개별화, 구체성과 현실성, 능동적 참여와 토론학습, 반복과 계속성, 집단활동,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에 의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가치전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설명), 도덕 이야기, ICT 활용, 모형 제시, 독서 • 간접적 가치탐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토의, 문답, 역할놀이, 집단 탐구, 글쓰기 • 실천·체험을 통한 가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실연, 현장체험학습, 덕목실천학습, 집단수련활동, 참여적 실천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이해 과정·절차 • 가치판단 과정·절차 • 가치심화 과정·절차 • 모범감화 과정·절차 • 실습실연 과정·절차 • 실천체험 과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놀이 수업모형 • 개념분석 수업모형 • 가치분석 수업모형 • 가치갈등해결 수업모형 • 가치명료화 수업모형 • 합리적 의사결정 수업모형 • 콜버그의 토론식 수업모형 • 도덕이야기 수업모형 • 집단탐구 수업모형 • 경험학습 수업모형

정리하면,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출제 문항은 ‘도덕과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해당하는 내용 및 방법’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틀을 활용하여 최근 8년(2017학년도~2024학년도)의 초등 도덕과의 출제 경향과 문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출제 경향 및 영역별 출제 빈도수 분석

먼저 ‘도덕과교육의 이론 영역’ 부문의 출제 빈도수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최근 8년의 항목별 출제 빈도수(1)

구분	도덕과교육의 이론 영역		
	동서양의 윤리사상(윤리학)		도덕심리학
	동양윤리	서양윤리	
출제 횟수	2회	4회	4회
출제 연도	2021(선진유가의 인성론), 2022(맹자)	2019(아리스토텔레스, 2문제), 2023(소크라테스, 플라톤), 2024(프랑케나)	2017(피아제, 프로이트), 2018(반두라, 사회학습이론), 2020(길리건), 2021(콜버그)

선행연구(이재호, 2016)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10년(2007학년도~2016학년도)과 최근 8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도덕과교육의 이론적 기초 부분의 출제 빈도가 5회에서 총 10회로 크게 늘었다는 점, 나아가 지금까지 임용시험에서 소외되었던 동양윤리 영역이 2회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보완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도덕과교육의 이론적 기초와의 관련 속에서 만들어진 문항이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그러한 문항이 교사의 지도역량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영역은 임용시험 문항 제작 과정에서 부단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빈도수 분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경향으로서, 콜버그(L. Kohlberg)와 같이 도덕교육에 관한 명확한 견해를 표방하고 있거나, 또 그 견해가 수업모형으로 안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덕과 수업 전략과의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덕과 수업에 녹아들어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의 이론이 임용시험 문항이 될 때 대체로 2차, 3차 사고로 연결되는 문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향은 도덕과 수업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견해가 출제되는 경우에 반대로 나타난다. 이하에서 확인

하게 되겠지만, 2024학년도에 출제된 바 있는 프랑케나(W. K. Frankena)의 윤리학적 입장을 묻는 문항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도덕과 교육과정 및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 부문의 출제 빈도수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최근 8년의 항목별 출제 빈도수(2)

구분	도덕과 교육과정 및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과의 교수·학습 방법	도덕과의 평가
출제 횟수	6회	10회	2회
출제 연도	2017, 2018, 2020(3문제), 2024	2017, 2018, 2019, 2021(2문제), 2022(2문제), 2023(2문제), 2024	2018, 2024

최근 8년의 출제 빈도수(총18회)는 이전의 10년 출제 빈도수(총17회)와 비교할 때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지필평가라는 제약 속에서도 도덕과의 실질적인 지도역량을 확인하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 교육과정의 이해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관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인 만큼, 그 유사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아도 무리한 분석이 아니다. 이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수업능력의 평가 강화’라는 임용시험의 변화 경향과 상당한 정도로 내적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도덕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17학년도에는 제시된 교수·학습과정안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의 명칭과 그 주제에 해당하는 가치·덕목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8학년도 또한 제시된 교수·학습과정안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체계에 제시된 주제를 묻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후 내용 영역의 명칭과 주제에 해당하는 가치·덕목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가치·덕목의 이름을 묻는 문항이 지엽적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20학년도에는 도덕과에 해당하는 대문항 자체가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묻는 문항,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역량 중 하나를 묻는 문항, 나아가 초등 『도덕』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아마도 2020학년도 임용시험 실시 해인 2019년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었던 시기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학년도에는 다시 핵심 가치 중 하나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도덕과의 교수·학습 방법 영역은 2020학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출제된 영역으로서 문항 빈도수도 가장 높다. 주지하고 있듯이, 이 영역은 주로 도덕과의 일반 수업모형에 해당하는 6수업과정·절차와 특정 수업모형에 해당하는 개념분석, 가치분석, 도덕이야기 수업모형 등이 출제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7학년도에서는 역할극에 비하여 역할놀이가 갖는 장점을 묻는 문항, 2018학년도에서는 반두라(A.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기술하도록 하는 문항, 2019학년도에서는 6수업 과정·절차 중 특정 과정·절차에 해당하는 명칭을 묻는 문항, 2021학년도와 2023학년도에서는 콜버그의 토론식 수업모형에 관한 문항, 2022학년도에서는 가치분석 수업모형에 관한 문항, 그리고 2024학년도에서는 경험학습 수업모형의 이름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평가 영역의 경우에는 특정 평가법의 특징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다음 그것을 지칭하는 ‘명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교수·학습 방법 영역은 최근 8년 동안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영역인 만큼, 이에 관해서는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최근 8년의 항목별 출제 빈도수(3)

구분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학습지도의 원리	학습지도의 방법	교수·학습의 절차 및 모형
출제 횟수	1회	1회	9회
출제 연도	2021	2023	2017, 2018, 2019, 2021, 2022(2문제), 2023(2문제), 2024

학습지도의 원리는 총 13개의 원리 중 ‘통합성의 원리’를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학습지도의 방법의 경우 플라톤(Plato)의 대화편 중 『메논』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콜버그 이론과의 관련 속에서 직접적인 가치 전수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 도덕과 임용시험 출제 문항에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출제 빈도수가 높은 이유는 교수·학습의 절차 및 모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문항이 많기 때문인데,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최근 8년(2017~2024)의 항목별 출제 빈도수(4)

구분	도덕과 교수·학습 절차 및 모형								
	역할 놀이	도덕 이야기	가치 판단	콜버그 토론식	가치 분석	실습 실연	실천 체험	가치 명료화	경험 학습
출제 횟수	1회	1회	1회	2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출제 연도	2017	2018	2019	2021, 2023	2022	2022	2022	2023	2024

최근 8년 동안에는 총 16개의 교수·학습 절차 및 모형 중 9개가 출제되었다. 선다형 평가 방식에서 서술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최근 18년으로 출제 연도를 확장하는 경우 6수업 과정·절차로 명명되는 일반 수업모형과 콜버그의 토론식, 가치분석, 가치명료화 등의 특정 수업모형 대다수가 출제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8년간 이루어진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은 그 이전의 10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수업 능력 평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은 도덕과교육의 이론 영역과의 관련 속에서 출제된 문항 수가 대폭 많아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실질적인 도덕과 지도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한 1개 대문항 형식에 따른 문항 수를 극복하려는 조치의 일환일 수 있겠다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짐작은 순전히 연구자의 짐작에 불과하며, 실지로 그러한 조치가 총체적인 도덕과 지도 능력의 평가를 겨냥하고 있는지, 또한 2차, 나아가 3차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의 개발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세부적인 문항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항 내용의 분석 과정은 이 점을 좀 더 분명한 형태로 드러낼 것이다.

Ⅲ.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출제 문항 분석

이 장에서는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출제 문항의 분석을 시도한다. 초등 도덕과의 출제 문항은 단답형과 서술형이라는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답형에 비하여 서술형이 교사의 총체적인 지도역량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단답형인가 서술형인가 하는 점 이상으로, 문항이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는가 하는 점 또한 평가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단편 지식을 묻는 문항의 경우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다루고, 특별한 분석이 필요한 문항에 비중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1. 2017~2020학년도

2017~2019학년도까지 출제된 문항의 주된 특징은 도덕과교육의 이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3년 동안 연속하여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2017학년도에는 피아제(J. Piaget)와 프로이트(S.

Freud)의 이론, 2018학년도에는 반두라(A.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2019학년도에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이 고르게 출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소간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2017~2020학년도까지 출제된 문항들은 도덕과의 수업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보다는 특정 이론과 관련한 내용 지식을 묻는 형태에 가까운 문항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19학년도에 출제된 다음 두 개의 문항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1) ㉠에 공통으로 들어갈 학자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선’이라고 주장한 것을 쓰시오. [1점]

2) ‘쾌락’ 대신 ‘두려움’을 ㉡에 적용하여 <보기>와 같은 형식으로 쓰시오. [2점]

— <보 기> —

쾌락이 과도할 경우에는 방탕하게 되고, 부족할 경우에는 무감각하게 된다. 쾌락에 관해서 중용은 절제이다.

위에서 ㉠과 ㉡은 각각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용’을 가리킨다. 이 두 개의 문항은 도덕과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러한 지식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도덕과교육 이론의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의 긴밀한 관련을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관한 이해와 적용을 확인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2020학년도 시기에는 단답형 2문항 서술형 1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단답형 문항의 경우는 수험생에게 심도 있는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7학년도에 출제된 문항을 소개해 보겠다.

3) (나)의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다루는 주제가 속한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의 ①내용 영역의 명칭과, ②이 주제에 해당하는 영역별 가치·덕목 1가지를 쓰시오. [1점]

·① : _____

·② : _____

위의 문항은 사실상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를 되돌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평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용 체계에 대한 이해가 도덕과 수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줄 외우는 일과 내용 체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해하는 일은 명백히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실지로 정의(justice)와 사랑이라는 가치 용어가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것의 용도만 알뿐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사랑의 정의를 모른다고 하여 그를 향하여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정의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의 문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의 용도를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의 정의, 더 정확히 말하여 ‘이름’을 물음으로써 수험생이 임용시험을 통하여 사고력을 발휘할 기회를 온전하게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20학년도에 출제된 문항은 세 개의 문제 모두 교육과정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수험생에게 심도 있는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길리건(C. Gilligan)의 도덕심리학 관점을 등장시킴으로써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문항을 도덕과교육의 이론 영역 해당하는 부분과 연결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2021~2023학년도

2021학년도에서 2023학년도까지 출제된 문항의 경우, 앞선 4개년의 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얼마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도덕과 수업과의 실질적인 관련 속에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발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관련’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도덕과 수업의 난점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도덕과 수업의 경우 교사가 아동에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 또는 선입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이재호, 권윤정, 임병덕, 2019, 185-186). 즉, 도덕적 지식의 전달을 과업으로 하는 도덕과는 자칫 이데올로기 성격을 띤 교육활동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하여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도덕과 수업의 정체성 확립을 이론적 과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도덕적 문제 사태는 다양한 규범이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사태로 나타난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도덕과는 이 복잡하고 논쟁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바람직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하고 있다.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출제 문항들은 콜버그의 토론식 수업, 가치분석 수업모형, 플라톤의 대화편과의 관련 속에서 이 두 가지

어려움에 관한 대안적 관점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2022학년도에도 출제된 다음 문항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2) 다음 밑줄 친 내용을 적용하여 (나)의 ① ㉠과 ② ㉡에 해당하는 교사의 발문 전략을 서술하시오. [2점]

[문제 상황] 전교 어린이회 회장인 범수는 회의 시각이 다가오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윤지를 걱정하였다. 범수는 다급한 마음에 조용히 아침 독서 활동 중인 윤지 반의 교실 문을 노크 없이 벌럭 열고 큰 목소리로 윤지를 불렀다. 윤지 반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잠정적 가치 결정] 윤지 반 친구들에게 예절을 지키지 않더라도 윤지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다.

① : _____

② : _____

여기에서 ㉠과 ㉡은 각각 가치분석 수업모형에서 사용되는 4가지 가치원리 검사 중 ‘역할 교환 검사’와 ‘보편적 결과 검사’에 해당한다. 가치분석 수업모형은 처음부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겨냥하고 있으며, 현재 ‘가치의 문제’를 취급하는 여러 수업모형 가운데서도 가장 진일보된 수업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재호, 김향인, 2024). 이 점은 가치원리 검사를 다루면서도 그것에 해당하는 ‘발문 전략’을 물음으로써 도덕과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도덕과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역할교환 검사와 보편적 결과 검사라는 그 이름을 물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것의 용도에 관한 위와 같은 문항은 예비교사의 사고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3학년도에 출제된 문항은 별도로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각각의 문항이 대문항 내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도덕과의 두 가지 난점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세 개의 하위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 (가)의 ㉡에 들어갈 활동을 쓰고, ㉢ 밑줄 친 발언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2점]

학생: 그럼, 고민할 것 없이 줄이고 늘이는 것이 자유로운 목줄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지금 지호네 강아지가 찬 목줄은 줄이거나 늘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덧붙일 사항이 있습니다. 지호네 강아지는 태어난 지 2년이 지나서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고, 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이 되는 강아지는 목줄을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택에는 변함이 없나요?

㉠ : _____

㉡ : _____

2) (나)와 다음 글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점]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에서 덕의 종류를 열거하며 말한 메논의 대답에 이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의 덕인데, 메논은 (㉣)을/를 늘어놓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은/는 ‘A안’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학자가 전통적 도덕교육의 효과를 부정하면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3) (나)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점]

이 대문항에서는 먼저 첫 번째 문항으로 콜버그의 토론식 수업모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덕과 지도 능력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그 수업모형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문제의식, 즉 ‘덕 보따리’(덕목 수합, swarm of virtues)를 취급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콜버그의 도덕교육론은 덕 보따리 식 접근의 전통적 도덕교육이 교화(indoctrination)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하고 있다(박대호, 이재호, 2022, 129). 마지막 세 번째 문항에서는 콜버그의 토론식 수업모형과 가치명료화 수업모형의 대비 속에서 이데올로기 교육에서 벗어나는 일이 ‘도덕 상대주의’(moral relativism)라는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대문항과 하위문항이 서로 내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2023학년도의 문항은 좋은 도덕과 수업의 의미를 고도로 집약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임용 문항의 개발 과정에서 특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서는 동양윤리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출제된 이력이 거의 없었던 내용 영역이 출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동양윤리’라는 점은 향후 임용 문항의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고민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2개년에 걸쳐 기술된 문항이 ‘소인’과 ‘사양지심’이라는 다소 상식적이고 단편적인 답을 묻고 있다는 점은 장차 문항 개발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3. 2024학년도

가장 최근인 2024학년도의 문항은 앞선 분석 과정에서 언급된 아쉬운 점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대문항과 하위문항의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도덕과 수업과의 관련 속에서 심도 있는 지식을 묻고 있는지, 수험생이 2차, 3차의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묻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2024학년도의 문항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는 제시된 대화문을 차치하고 해당 문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 ① ㉠에 관한 설명을 [A]에 근거하여 쓰고, ②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① : _____

② : _____

2) ㉢에 들어갈 도덕과 수업모형을 쓰시오. [1점]

3) ㉣에 들어갈 도덕과 평가 방법을 쓰시오. [1점]

첫 번째 문제에서 ①과 ②는 각각 프랑케나의 윤리학적 입장과 도덕과의 핵심 가치(성실, 배려, 정의, 책임) 가운데 하나를 답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애초에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총론’을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특별한 고민이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종류의 문항이 계속하여 출제되고, 또 그것이 출제 경향으로 굳어지는 경우, 예비교사는 자신이 공부해야 할 내용을 특별히 이해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요, 결국 공부해야 할 내용을 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도덕과 임용 공부의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순전히 가능성이기는 해도, 이러한 종류의 문항은 우수한 교사의 선발이라는 임용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별도로 하더라도, 우수한 교사 양성 과정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단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IV. 결론

초등 임용시험도 하나의 시험인 만큼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데 동반되는 난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식을 ‘정보’와 ‘판단’으로 구분하는 오우크쇼트(M. Oakeshott)의 견해는 이 난점을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일체의 지식에는 명제나 규칙의 형태로 언어화할 수 있는 정보의 요소와 명제와 규칙의 형태로 언어화하는 것이 원칙상 불가능한 판단의 요소, 즉 적용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같은 것이 들어있다. 교사가 교육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후자에 가까우며, 초등 임용시험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오우크쇼트가 강조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것도 온전히 대상화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초등 임용시험은 정보에 해당하는 역량을 확인하는 일 이상으로 판단에 해당하는 역량을 확인하는 과업을 문항 출제의 제한된 내외적 여건 내에서 가능한 한 충실하게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과업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연구자 역시 동감한다. 그러나 출제 문항은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종래의 출제 문항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을 제시하는 일은 꼭 필요한 과업이다. 이하에서는 본문에서의 분석 및 논의를 염두에 두고, 향후 초등 임용시험 도덕과 문항의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의 면에서 볼 때 도덕과 수업의 실질적 지도 능력의 평가를 염두에 두는 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도덕과 수업의 내용이나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히 특정 윤리학자가 강조한 개념이나 견해를 묻는다면, 특정 수업모형과 그것에 해당하는 절차의 이름을 묻는 것은 지식 중에서도 ‘판단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다거나 ‘도덕과 수업의 지도역량을 확인’하는데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항 개발 과정에 위의 두 가지를 부단히 염두에 두고 도덕과를 위한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문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문항과 하위문항 간, 대화문과 문항 간 내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 및 설계 면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한 배제한 상태의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국어과 임용시험 문항을 분석한 한 연구는 2013학년도부터 문항에 제시되는 수업 계획이 세분화되고 정교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문항 설계가 외형적으로 화려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도영, 2017, 37). 도덕과도 이러한 점에서 참고하여 반영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화려해진 문항 설계에 치중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는 문항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문항을 푸는 데 활용되지 않는 정보는 사실상 의미와 가치가 없다. 따라서 수험생이 문항을 접하여 깊게 사고하고 문제를 푸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만을 담은 질 높은 문항 구성 및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로, 내용과 설계 면을 아울러서 제안하면, 예비교사로서의 수험생의 판단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 본론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덕과 임용시험 문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관하여 항구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주입식 교육의 그림자가 임용시험 문항에 드리워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양의 내용 지식을,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 이미 고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달달 암기하는 일은 그 일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수험생에게 고통을 유발한다. 그 고통스러운 임용시험 준비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판단 능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발휘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임용시험은 교육대학 학생들에게서 4학년의 학창 시절을 빼앗아 갔고, 그들을 ‘얼굴이 뿌옇게 뜬 고시생’으로 만들었다”(신춘호, 2020, 131)라는 한 연구자의 발언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마지못해 고통스러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예비교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임용시험에서 예비교사로서의 수험생이 자신의 판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하는 일은 지난한 과업이다. 임용시험을 주제로 한 종래의 연구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의 임용제도는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다. 실지로 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 일은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시행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적지 않은 이견과 쟁점, 그리고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선발 경쟁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소간의 변경과 보완을 시도하면서 계속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견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임용 출제 문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 자체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가능한 한 교사의 지도역량을 고려하여 질 높은 평가를 위하여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향후 도덕과의 임용시험 문항 개발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논문 투고일: 2024. 6. 28. ※ 논문 수정일: 2024. 8. 14. ※ 게재 확정일 : 2024. 8. 30.

〈참고문헌〉

- 강훈식(2019). PCK에 근거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과학과 문항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5), 585-597.
- 김민조(2019). 교육평가도구로서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의 성격과 타당도 분석. **초등교육연구**, 32(1), 37-65.
- 나재권, 이영석(2021). 초등교원 임용시험 체육과 문항 분석: PCK 관점으로. **한국초등교육**, 32(4), 75-88.
- 박대호, 이재호(2022). 콜버그와 헤르바르트: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탐색. **초등도덕교육**, 78, 123-151.
- 신춘호(2020). 초등교원 임용시험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회고와 전망. **초등교육연구**, 33(1), 119-138.
- 이도영(2017). 초등학교 국어과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52(4), 27-46.
- 이완기(2016).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고사 영어 지필시험의 타당도 연구. **한국초등교육**, 27(1), 189-212.
- 이재호(2016). 초등도덕과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 및 문항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933-953.
- 이재호, 권윤정, 임병덕(2019). **도덕과교육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 이재호, 김항인(2024). 가치분석 수업의 이론적 기초와 교수전략. **교원교육**, 40(1), 51-69.
- 정혜승, 송소연, 옥현진(2017). 초등임용시험 문항 분석: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과 문항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1(4), 290-30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2024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기출자료. (검색일 2024. 5. 17.)
<https://www.kice.re.kr/boardCnts/list.do?boardID=1500213&searchStr=&m=030307&s=kice>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the initial examination for the selec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cusing on Moral Education in the school year 2017~2024

Lee, Jae-Ho¹, Park, Dae-Ho²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and questions in the initial examination for the selec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cusing on Moral Education, and to explore future improvement tasks.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the trends and questions from the initial examination for the selec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Moral Education over the past eight school years (2017~2024), consider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the exa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ritical analysis, the study propose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ques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cont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ques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evaluation of practical teaching competencies. Secondly, in terms of item design, it is important to develop items that minimize unnecessary information. Thirdly, both in terms of content and design, it is essential to develop items that respect the judgment of the test takers. The examination serves a dual purpose of selecting and educating good teachers, so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its validity.

Keywords : Moral Education, the selec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evaluation, teaching competency, validity

1.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hlee@gnue.ac.kr (The First Author)

2. Assistant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hpark@cje.ac.kr (Corresponding Author)